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바른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에의 동참을

각종 모임보다 예배가 우선, 예배시간 엄수하기

예배가 달라지고 있다. 교회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바른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자들의 마음을 분산시킬 만한 부분들은 예배순서에서 과감하게 빼거나 보완해 왔다. 그리고 최근 예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강조에 걸맞는 예배순서를 검토하면서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틀의 주보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의 위로와 친교'로 옮겨지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실상 수많은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일예배를 포함하여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 금요일집회 등 모든 공집회에 성실히 임할 것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제가 많다. 이 숙제는 무엇보다도 '예배시간 지키기'로 대변된다. 예배 지각생들이 여전히 많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지각했다는 말은 매우 어색한 변명이다. 늦장부리다가 늦거나, 차를 먼저 빼기 위해서 늦게 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그리고, 교구협의회나 각 부서의 회의나 모임이 공예배시간까지 연장되는 이유로 지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등부와 청년 대학부가 참여하는 5부예배의 경우는 적응기간이 짧아서인지 소그룹공부 등의 이유로 다수가 예배시간에 늦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일학교 예배에 까지 연장되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는 학생들 대다수가 부서예배에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예배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기조차 한다.

예배드리는 자세 또한 숙제다. 예배시간의 대부분을 줄면서 보내는 사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데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일찍부터 와서 잠담하는 사람,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 핸드폰과 삐삐를 켜두고 앉아 있는 사람, 껌씹는 사람 등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더러 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갱신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배에 임하기 전 마음의 준비, 시간지키기, 예배에 임하여 바른 자세 갖추기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전지한 기대와,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를 중심에서 회복되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주일 대예배뿐 아니라, 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와 금요일집회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전지되어야 할 것이다. 온전히 회복된 충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온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충현의 온 찬양대가 함께 하는

제4회 충현 찬양의 밤

11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찬양위원회에서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제4회 충현 찬양의 밤을 28일(금)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가지게 된다. 총 7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크로마하프, 만돌린, 핸드벨과이어, 남성중창단 등 총 12개 팀, 800여명이 출연하여 찬양하는 이번 찬양의 밤의 진행은 김성관 담임목사가 직접 담당한다.

현재 각 찬양팀은 성실한 준비에 힘쓰고 있으며, 이 찬양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충현의 모든 찬양대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잠겨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찬양위원회에서는 영성이 넘치는 찬양과 풍성한 감사의 밤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교구영성훈련
아름답게 진행 중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교구 영성훈련이 교구별로 150여명씩 참석하여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 교구별로 매 주 화, 목요일에 걸쳐 충현기도원에 들어가서 진행하게 되는 영성훈련은 이미 14교구가 일차로 마쳤으며, 이번 주에는 5, 6교구가 들어가게 된다. 각 교구의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새로워져 영성이 깊은 일꾼들로 거듭나기를 목표로 하여 진행되는 이 영성훈련에는 기도원가꾸기 등의 봉사활동도 곁들여진다. 이에 따라 지

금까지 들어간 교구 식구들은 이미 기도원 감장담그기를 마치고도 했다(좌측 사진)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기대된다.

오늘은 제4차 성찬식의 날

오늘 1-5부예배시에는 97년도 제4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 김성관 담임목사를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 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그 피가 흘러 나옴에 생명이 주어진 것을 깊이 새기면서, 성만찬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총을 바로 기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해야 하겠다. 한편, 교회에서는 내년도부터 성찬식을 6차례로 늘려서 성만찬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충현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타교회 성도여러분께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님과 귀 교회 위에 축만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먼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외에, 타교회에 교적이 있는 성도님에 대하여는 등록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예배나 수요일예배, 그리고 금요일집회 등에 참석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나, 부디 바라기는 충현교회에 등록하시기보다는 본 교회에 가서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으로 귀히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합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 1997년 12월7일(주일)까지
- 접수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장소: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구내전화 356)
- 접수종류: 성탄카드, 격려편지, 성탄선물(다시마, 야채가루, 쇠고기수프, 냉면, 라면, 즉석미역국 또는 북어국, 멸치 과자, 그밖에 저비용 면서도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한국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원 수련회

24-25일 수안보에서

당회원들은 교회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마음을 모으고자 24-25일, 1박 2일에 걸쳐 수안보에서 영성훈련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기도와 말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당회원들이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요청된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교만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 (2)

(이사야 9:18~10:4)

〈지난 주일에 이어〉

1. 이스라엘의 교만

(1)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2) 하나님의 진노에 반항하는 말을 하였습니

2.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형벌

(1)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3.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형벌

하나님은 임마누엘되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자에게 창성하고, 추수하고, 승리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평안과 자유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

(1)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은 불태우는 형벌을 받습니

① 악행으로 불태우는 형벌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같이 곧 질려와 형극을 삼키며 뱉뱉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할과 같은 것이라”(8절)

악을 행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 때문에 손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슴에 억울한 불을 지르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태우는 것과 같은 ‘악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른 것입니다. 책임은 다하지 않고 수치를 맞추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거역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거역하고 백성은 나라의 위정자를 거역하고 하나님마저 거역하면 이것이 악행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고 윗사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종을 거스리고 하나님마저 거스리니 마지막에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셋째, 음란한 것입니다. 넷째, 패역하여 회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고칠 마음이 없고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행이 무엇을 불태웁니까? 첫째, 질려를 불태웁니다. 질려란 마음이 꼬부라져서 신용을 지키지 아니 하는 거짓말장이들을 말합니다. 질려와 같은 거짓말장이들은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둘째, 가시와 형극을 태웁니다. 가시와 형극은 포악한 자들을 말합니

다. 자기의 주먹과 세력을 휘둘러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셋째, 뱉뱉한 수풀을 태웁니다. 뱉뱉한 수풀이란 소위 성공했다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무가 우거져 수풀이 뱉뱉하여 남이 보기에는 굉장한 성공을 했으나 그 속에는 악한 맹수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②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진노를 불태우는 형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쉼나무와 같을 것이라…”(19절)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불이 붙는 것도 무섭지만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더욱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땅에 떨어지는 날에는 백성은 불타는 쉼나무와 같겠다고 하였습니

쉼나무란 나무가지들 잘라 말려서 묶어 놓은 나뭇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간판은 목사, 장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은 드리지만 정성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찬미를 불러도 은혜의 줄이 끊어져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회개와 결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충현교회의 성도들은 쉼나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은혜의 진액을 섭취함으로써 쉼나무가 아닌 포도나무의 가지(요 15:5)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골육상쟁의 형벌을 받습니

“...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길지라도 주리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19-21절)

이스라엘이 우편으로 움키고 좌편으로 먹듯이 닳치는 대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는 것은 극단의 개인주의라는 말입니다. 쉼나무와 같은 이 무리들은 극단의 개인주의자들이어서 닳치는 대로 남의 것들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 넣습니

그래도 배부르지 못하여 형제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삼키고, 심지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하여 유다를 뜯어먹는 골육상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4.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형벌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악한 사람이 되면 남의 집에 불을 놓는 자와 같으니 그 가슴에도 불을 붙이고 그 가정에도 불을 붙이고 그가 사는 땅에도 불을 붙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악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불의의 종류가 어떠합니까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1, 2절)

첫째, 불의한 법령을 만듭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세력있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여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이란 역사를 의미하며, 따라서 “불의한 말”이란 왜곡된 역사를 의미합니다. 셋째, 약자를 괴롭힙니다.

(2) 불의를 행함으로 받는 형벌이 어떠합니까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3, 4절)

첫째, 도움을 받을 곳도 피할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였더니 영원하신 재판장 하나님이 친히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불의를 행하던 자를 도와 줄 자가 땅에도 하늘에도 없고, 그가 피할 곳이 땅에도 하늘에도 없습니다. 온통 지옥불입니다. 살아도 피할 곳이 없고 죽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고 내어쫓김을 받으면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갈 곳이 없습니다.

둘째, 멀리서 싸움 잘하는 무서운 원수를 불러 쳐들어 오게 하여 심판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끼리는 세력이 있는 자는 아무리 못된 것을 해도 그를 감옥에 넣지 못합니다. 누가 세력있는 자를 잡아 가겠습니까? 약자들이 아무리 억

울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국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 나라에서 강한 원수를 불러 들여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원수가 쳐들어 오면 누구를 괴롭힐지 모르겠는가? 가난뱅이나 고아나 과부에게는 손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과 세력이 높다고 교만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힙니다. 원수들은 돈 많고 세력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 결박해 큰 구덩이 안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는 언제 끝어다가 처박아 놓았는지 열구, 백 구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 위에 포로들을 또 올려 세웁니다. 그리고는 찢고 때려서 죽입니다. 주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주검 밑에 깔리게 됩니다. 죽은 시체 위에 시체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는 말씀은 이런 끔찍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심판을 만난다면 누가 이런 죽음을 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때는 개인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남은 때는 육신의 것을 찾아 가지 말고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살면 창성하는 복을 받고 성공자의 복을 받고 승리자의 즐거움을 누리며 평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악한 사람이 되면 남의 집에 불을 놓는 자와 같으니 그 가슴에도 불을 붙이고 그 가정에도 불을 붙이고 그가 사는 땅에도 불을 붙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악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SERMON OF JEREMIAH

(Jeremiah 26:1-19)

Jeremiah was a prophet who ministered in Judah during the reigns of Josiah and succeeding kings up to the Babylonian exile. He proclaimed words that were spoken first by God Himself and were therefore certain of fulfillment. During the reign of King Jehoiakim, Josiah's son, a special message was given to him to deliver to Judah. It begins with specific instructions from God to Jeremiah, "This is what the Lord says: Stand in the courtyard of the Lord's house and speak to all the people of the towns of Judah who come to worship in the house of the Lord. Tell them everything I command you; do not omit a word" (vs. 2).

These instructions contain three very important orders. The first order is to stand in the courtyard of the Lord's house. Jeremiah is not instructed to stand just anywhere but to stand in the temple of the Lord; God's church. The second order is that he is to speak to the church's members, those who come to worship regularly. God is telling Jeremiah that these people who earnestly seek to worship Him, really need His message. They come to worship the Lord but they don't hear the Lord; that's why God clearly states to Jeremiah,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ese people are continually coming to God's temple but are not hearing God's message. And the third order contains a double request of the same order. Jeremiah is to tell the people everything that God tells him, he is not to omit one word but repeat everything exactly as God says. He is asking Jeremiah not to change one word for fear of human approval or disapproval.

God tells Jeremiah the reasoning for His message to Judah, "Perhaps they will listen and each will turn from his evil way. Then I will relent and not bring on them the disaster I was planning because of the evil they have done" (vs. 3). God wants His people to turn away from evil. He wants them to be aware of their wrongdoings and repent. He wants them to change their ways and follow after Him. Although His people come to worship, they are not worshipping but doing evil. This evil comes at a high price and God asks Jeremiah to be strong and tell them exactly what He says in order to avoid His calamity.

Jeremiah's sermon to Judah, directly commanded by God is, "This is what the Lord says: If you do not listen to me and follow my law, which I have set before you, and if you do not listen to the words of my servants the prophets, whom I have sent to you again and again (though you have not listened), then I will make this house like Shiloh and this city an object of cursing among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vs. 4-6). Jeremiah directly quotes God, "This is what the Lord says", so that there is no doubt or misinterpretation. The message is unquestionable and clear, if His people do not listen and do not follow His laws (which they obviously haven't done in the past) then God will destroy His beloved temple and make His city cursed among nations. God's temple will be like Shiloh. Shiloh is a terrible place that is well known to the Israelites. Their city, known from their ancestors as the promised land from God, will be cursed.

This message is very strong. The Israelites know that God's temple is the place where God abides with them. They know that their city is God's blessing land. All their blessings and comfort come from these two sources. If the Israelites leave the temple and city and practice idolatry elsewhere, that would be fine. But for them to go to God's temple to worship, hear His message, live in His city and use His name and continually do and practice evil is immoral and wicked. God's punishment will be severe - a disaster!

"The priests,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heard Jeremiah speak these words in the house of the Lord" (vs. 7). As soon as he finished speaking the exact words that God commanded, all the people seized him and threatened to kill him. Before consulting God for His decision, they drew their own decisions that Jeremiah must be bad and that his words could not be God's will. How could Jeremiah liken God's temple to Shiloh (that's bad)? How could he curse God's blessed city (that's not God's will)? Their way of thinking reflected their teaching.



예레미야의 설교

(예레미야 26:1-19)

예레미야는 유다가 요시아왕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사역한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말씀을 선포했고 그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קים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그는 유다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그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거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2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서라는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는 아무데나 설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전이 되는 교회 안에 서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도록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하여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세번째 명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여부를 두려워하여 한 말씀이라도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씩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3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악에서 떠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의 길을 돌아켜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예배하려 나아오기는 해도, 여전히 악을 행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죄악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담대하여 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담대히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나서 유다 백성에게 한 설교는 이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4-6절).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나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만일 주의 백성이(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주의 계명에 귀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성전까지라도 파괴하시며, 주의 성읍으로 열방 중에서 저주받은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름끼치는 장소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성읍이 저주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재가들의 성을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축복과 위로가 이 두 가지, 곧 성전과 축복받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과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성에 살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재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채, 예레미야가 나쁜 사람이며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나쁜 실로에 비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을 제주할 수 있었을까요?

All these people thought they were better than God and made their own conclusions. They knew that life belongs to God, yet without a moments thought they were ready to kill Jeremiah.

As they gathered around him, they questioned his motive for speaking so cruelly about their temple and their city. To them, prophecy meant God's blessing. In the name of the Lord, everything was to be a blessing, not a curse. How could he use God's name and curse God's house? Therefore, they knew he was wrong. To gain support for their decision to kill him, they called upon the city's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not present at the time of Jeremiah's sermon.

The government officials came to God's temple to listen to hear what the priests, prophets and all the people had to say on the matter. With the government officials present, the power to kill Jeremiah was legalized. So, the priests and the prophets told the officials, "This man should be sentenced to death because he has prophesied against this city. You have heard it with your own ears!" (vs. 11). Because he cursed the city, surely the government officials would favor their decision to kill him.

"Then Jeremiah said to all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The Lord sent me to prophesy against this house and this city all the things you have heard. Now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s and obey the Lord your God. Then the Lord will relent and not bring the disaster He has pronounced against you" (vss. 12-13). Notice that Jeremiah doesn't address the priests and prophets, only the officials and people. He discerns the situation and places that there is no trust in the priests and prophets. He continues, "As for me, I am in your hands; do with me whatever you think is good and right. Be assured, however, that if you put me to death, you will bring the guilt of innocent blood on yourselves and on this city and on those who live in it, for in truth the Lord has sent me to you to speak all these words in your hearing" (vss. 14-15). Jeremiah truthfully speaks to them of the Lord's command. He doesn't change any of God's words to help him in this situation. He doesn't place value in his life but in God's word for them to listen.

Now, an amazing thing occurs.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tell the priests and prophets, "This man should not be sentenced to death! He has spoken to us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vs. 16). The whole environment changes. Everybody (priests, prophets,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have heard God's message. The innocent people responded correctly to the priests and prophets. They really believed that Jeremiah was a servant of God. He didn't compromise the Word of God and told the whole truth even though his life was at stake. The Jewish people knew God and recognized and found a true servant. They also realized that the priests and prophets were wrong.

Some of the elders of the land stepped forward and spoke to the entire assembly of the prophet Micah's ministry to King Hezekiah. They reiterated the doom that was prophesied by Micah regarding Judah. They also mentioned that King Hezekiah did not put Micah to death but feared the Lord and sought His favor. And the Lord relented and did not bring the disaster he pronounced against them but extended Judah for one hundred years more. The elders, with their experience, saw Jeremiah as a servant of God who should not be put to death but listened to.

The real key in today's message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people continued to come to the Lord's house and worship Him, even though their deeds were wicked. From a human standpoint, their actions appear honorable. Going to church every Sunday to worship God is a respectable deed. The problem is that God sees into the hearts of all mankind. He told Jeremiah to stand in the middle of His temple, not in the wilderness, not in the corner of street, not in someone's home but at the center of His house to preach to all the people His exact words. He was instructed not to omit even one word but to be honest and truthful. God knew their hearts and pleaded with them to repent and follow His ways. He asked them to listen to Jeremiah, for they had repeatedly not listened to the prophets He had sent time and again. God warned them of the severe consequences which would occur if they continued in their ways; He would collapse His temple and curse His city.

We find the same situation occurring again in the New Testament (Rev. 3:1-3). Jesus tells the church in Sardis that they think they are alive, calling His name, and doing well; when in fact they are dying. He says,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for I have not found your deeds complete in the sight of my God. Remember, therefore,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obey it, and repent. But if you do not wake up, I will come like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at what time I will come to you" (vs. 2-3).

Christians today need to search their hearts and come to God sincerely in faith. Whenever we are weak, torn, and struggling; we need to return to the cross in repentance and find God's grace. For the cross alone is our salvation! Our hearts are the temple of God. Is the Holy Spirit active in your heart? Our Lord wants to change your deeds. He has the power to change your heart. Let's hear Jeremiah's sermon to Judah and Jesus' sermon to Sardis, and change our hearts to worship, trust, and obey God everyday and in every way!

그들 스스로의 판단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만,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물려온 그들은 예레미야가 성전과 성에 대하여 그렇게 지독하게 말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언은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저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하여 지원을 얻기 위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도 못한 유다의 방백들까지 불렀습니다.

방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는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그들의 공모는 합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방백들에게,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11절) 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성을 저주한 이유로, 방백들은 예레미야 죽이는 일을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12-13절).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방백들과 백성들만을 언급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혹은 악한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녕히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음이니라"(14-15절) 고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주의 계명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상황 중에도 자신을 스스로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그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16절) 고 말한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릇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땅의 어떤 장로 중 몇 사람이 앞으로 나와 백성의 온 회중에게 히스기야왕에게 미가 선지자가 찾아온 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파멸에 대하여 예언한 미가의 말을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히스기야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미가를 죽이지 않고 주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사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유다를 백년간 더 지속하도록 하셨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이 장로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죽여야 할 자가 아니라 청종하여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의 전에 찾아와서 주께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행위는 칭찬할 만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것은 훌륭한 행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광야나 길거리, 다른 사람의 집에 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의 전 한복판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되 솔직하고 진실되어야 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계속하여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하여 그들의 길을 고집하게 될 때에 따르게 될 심각한 결과에 대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저주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계 3:1-3). 예수님께서 사데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살아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일개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카여 회개하라 만일 일개위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계 3:2-3)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연약해지고 지쳐서 발버둥칠 때마다 우리들은 회개하며 십자가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가 바뀌어질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설교를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데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날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뢰하며, 순종하십시오. 아멘.

교구영성훈련을 마치고

시간 부담이 영혼 사랑의 거룩한 부담으로

임통개

(집사, 1교구, 새가족부)

11월 11일 화요일, 우리 교구가 첫 번째로 영성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흔셋 늦은 나이에 얻은 세 살짜리 아들 다니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어서 빨리 가야지, 늦으면 차 떠난단다”. 처음에 영성훈련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다소 부담스런 마음도 있었지만, 모든 일을 뒤로하고 버스에 오르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 다른 분들의 얼굴도 참만한 기쁨으로 가득해 보였다.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예비되어 있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가슴은 설레었다. 기도원에 도착하자 나는 기도했다.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 선택된 일꾼이 되어서 내려가게 해주소서”. 그리고 나서 다함께 열심히 찬송을 불렀다. ‘잠시 세상에 내가 더 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홍성 목사님은 시편 18:1을 통하

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순종으로 봉사하는 삶에 대하여 뜨겁게 증거하셨다.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에 깊이 젖었다. 예배 후에는 봉사활동으로, 김장을 위한 무우와 배추를 뽑아 나르는 일에 동참했다. 엄마를 따라온 어린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작은 무우들을 낚았다.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함께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은 참스런 가을의 수확만큼이나 풍요로웠다. 그래서인지 봉사활동을 마치고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같았다.

오후에는 최지혜 전도사님이 요 1:12-13을 통해서 교구일꾼교육을 진행해 주셨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구원의 감격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임을 강조하시면서, 심방을 받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대접에 신경쓰지 말고 예배와 말씀듣는 일에 마음을 모으라,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 등의 권면이 감사했다. 이후에, 우리는 낙엽이 쌓인 숲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앉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 가졌던 부담이 끝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돌아오면서 각오했다.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일꾼이 꼭 돼야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 넘쳤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로 결심”

김영구

(집사, 3교구)

기도원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통하여 이승수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1-5을 중심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크게 깨닫고 도전을 받아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배 후, 우리 교구가 맡은 봉사활동은 김장담그기와 기도원 청소였다. 아침

부터 내린 비로 기도원 마당 여기저기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지만, 우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1교구가 수확하고 2교구가 절여놓은 배추를 꺼내어 씻고 썰고 양념하고 날랐다. 비는 어느새 눈으로 변해 있었고, 우리들의 입에서는 ‘아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맘으로 천여포기의 배추김치 담그는 일을 무사히 끝마쳤다. 내린 비와 눈으로 인해 신발이 다 젖고 온통 발이 부르텔어도 누구 하나 불평없이 감사의 말들만 오고갔다.

김장담그는 일 외에도 우리는 숙소의 각 방을 청소하면서 방마다 걸려 있는 커튼을 거두어 세탁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땀 흘리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영성훈련의 의미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귀중한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케냐는 1888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4년에 독립한 나라로서 동쪽으로는 소말리아와 인도양, 서쪽으로는 우간다, 남쪽으로는 탄자니아, 북쪽으로는 이디오피아와 수단에 접해 있는 아프리카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나라이다. 케냐의 대부분 지역은 초목이 거의 없고 고온 건조한 평원으로 덮여 있는데 남서부의 비옥한 구릉 지역만이 이 나라 주민들의 주요한 거주 지역이다. 이집트의 카이로공항을 떠난 우리들은 5시간만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나이로비에서 서북쪽 수단 방향으로 약 700 km 가량 떨어져 있는 케냐 북부의 로드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우리를 인도한 분은 통합측 신일교회에서 협력선교사로 파송 받은 박홍순 선교사로서 케냐에 와서 언어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케냐의 도로 상황은 매우 낙후되어서 나이로비를 떠나 얼마간 가다보니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훼손된 곳이 너무도 많아 우리는 수차례 큰 사고의 위험도 만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였다. 좁고 낡은 차에 6명이 타고 약 12시간에 걸쳐 주행한 후 우리는 투루카나 족속들이 사는 로드와라는 지역에 도달하였다.

로드와는 고도가 낮은 사막지역에 위치하여서 매우 더웠다. 케냐에는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말라리아의 종류만 50여 가지가 된다고 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라는 충고를 받았으나 그래도 전혀 모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피곤한 몸을 쉬려고 하였으나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현지의 모텔에서 우리들은 밤새 잠을 설치면서 밤을 보냈다. 새벽 일찍 일어난 우리들은 숙소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민수기 14장을 상고하였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열두 명의 정탐군 중 10명이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

이집트 및 케냐 선교지 답사기행-2

— 열두시간 달려가 만난 투루카나 사람들 —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습니다

이승림

(목사, 선교위원회 · 영어예배부 지도)

케 한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며 깨달을 것을 바로 깨닫고 충현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들은 원주민들의 예배처소로 향하였다.

로키차라는 도로상의 마을에서 약 40여분간 길도 없는 곳으로 달려간 후 우리는 한 교회를 보았다. 그곳은 얼마전 한국의 한 교회가 3만 불을 헌금하여 예배당을 건축해 준 곳이었다. 현지인 전도사가 주일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약 150명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교회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여러 시간, 또는 반나절이 걸려서 걸어와 예배에 참석한다고 했다. 그들은 무척 가난하였다. 상당수는 맨발이었고 여러 명은 날카로운 돌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의 얇은 가죽을 슬리퍼처럼 만들어 신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놀랍게도 뜨겁고 힘이 있었다.

케냐는 영국의 통치를 받아서 공식 언어가 영어와 스와일리어인데 예배 시에는 공용어인 스와일리어로 설교자가 설교하고 통역사가 투루카나 언어로 통역하였다. 우리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은혜 받는 모

습은 우리들에게도 감동적이었다. 헌금 시간이 되자 가난한 성도들은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였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한 여성도가 자기도 헌금을 하면서 아이에게 헌금을 시키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난하였으나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 헌금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시고 칭찬하신 가난한 여인을 생각하게 하였다.

케냐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언어와 종교에 있어서 영어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어느 정도 있으나 우리가 본 상황은 당장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치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교육하며 교회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다. 우리들이 방문한 곳은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의 선교적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곳이었으나 50여 족속들로 구성된 케냐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가 설립되어야 할 곳도 많이 있다. 현지인 목사나 전도사들의 수가 너무 부족하여 우리가 또한 만났던 삼손 아쿠르 목사는 7개 이상의 교회를 혼자서 돌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들에게는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선포와 문맹퇴치와 기초교육,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도움들이 필요하다.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며 어린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훈련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안타까운 상황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7-38).

▼ 대부분 가난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찬양은 뜨겁고 힘이 있었다.



취재수첩



영어교육부, 감사기도 편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어교육부에서는 지난 16일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위의 사진) 1부는 찬양과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2부는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여러 가지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기도 편지를 쓰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데이비드 선생님은 천사로 분장하여 학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장막인 이 세상에서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물품을 보내주세요

선교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전제품(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과 그릇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장소는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이다.

충헌게시판

당회원 차량은 제2교육관 지하 4층에 주차해 주세요

교인들의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져감에 따라 교회는 제2교육관 지하4층을 주차장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며, 특히 당회원들은 지하 4층에 주차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각 건물들과 약간 떨어져 있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당회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이곳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부예배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5부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요한전도회와 베드로전도회에 소속하신 남자 성도님들(세례자 이상) 중 안내위원으로 섬기실 분들은 예배위원회 지도 박경한 목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3부, 오늘 성경퀴즈대회 실시

장년3부에서 오늘 집회시간에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잠깐 1장부터 18장까지가 범위인데 103개의 예상문제를 이미 지난 10월부터 알려 주어 준비토록 하였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추수감사절 부모님과 함께 드린 감사기도

· 영아부준이의기도

8월 31일 준이 출생을 감사합니다. 엄마 젖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달이 없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부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 1장씩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에 안걸리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대진교회당을 봉헌하고

불신앙의 땅에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길

이인영

(집사, 실업인전도회 서기)

할렐루야!

김창인 목사님의 우렁찬 성호에 이어 일곱 줄의 테이프가 다섯 개로 절단되고 순간 많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당에 들어섰다. 대진교회 헌당예배 11월 3일 오후 6시.

이 시간을 위하여 많은 날을 기다렸고 이 감사함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도 아끼지 않았던 실업인전도회 회원들은 감격하며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건축케 하시고 헌당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교회 안을 들어서는 성도들마다 아름답고 포근한 예배당 분위기에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무척 부러워하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격합니다. 이것은 피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셨으므로 말때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실업인전도회는 1996년 함무철 장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기를 소원하여 사업계획으로 정하였다. 그동안 여러 곳을 방문하고 조사하던 중 파평한 곳이 없애 기도하며 준비했었는데, 금년 초에 강원도 삼척의 대진이라는 동네에서 장병조 목사(당시 강도사)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문제의 청소년들을 동네 마을회관을 빌려 영어 교육을 하며 생계를 원하며 신앙을 심어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차례 그곳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곳이라면 그동안 기도하고 기뻐하며 찾던 곳으로 정하여도 좋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임원단에서 누차 협의하여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였다. 모든 회원들이 대진교회 건축 제안을 기다리고 있던 일이라며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건축비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였다. 건축비 조달 문제로 여러 번 회의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였다. 모일 때마다 대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1997년 6월 9일 우리의 손에는 가전 제품 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교회 건축을 착공하였다. 주님께서는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때를 맞추어 허락해 주셨다.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다. 완공을 앞두고 얼마의 금액이 부족하여 헌당예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았다. 믿음없는 동에게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감사예배를 지낼까 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네 근심 걱정 팔아라 네 쓸 것 미리 아시고 예비하여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의 말씀을 약속으로 체험토록 허락하

셨다. 착공 114일만에 연인원 1170명이 투입되어 11월 3일 오후 6시 빛 한 톨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께 봉헌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번 공사를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또는 전 교회의 조명 일체, 조경 공사, 피아노 기증 등 물질로 봉사하신 많은 회원이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예배의 사회를 맡으신 강병조 목사님의 음성이 흥분되어 있었다.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짐도 처음이요, 찬송이 이렇게 퍼지기도 처음이라.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가끔씩 말을 잊지 못하였다. 또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온 충헌교회 권사회 중장단의 찬양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설교에 동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도 주님의 말씀이 심어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부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이 새로 건축한 교회당이 부족하여 밖에까지 서서 설교를 듣고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객과 대진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하시는 목사님의 축도로 봉헌예배를 마쳤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곳이 대진동네의 구원의 방주뿐만 아니라 삼척시 전부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어 주기를 기도하였다.



직원모집

1. 지역
 - 1) 25세 전후의 세례받은 남자
 - 2)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근무직
 - 1) 경리직
 - ① 여, 23세 미만 - 사무국 근무
 - ② 여, 기혼자 가능 - 충헌기도원 (경기도 광주군 소재) 근무
 - 2) 방송실 - 남, 30세 전후 경력자 우대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주민등록등본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제출처

충헌교회 사무국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관 402)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직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직무원사 /
남녀 세리집사
- * 직무장로와 교역자들은 요일(11월 23일) 한 분도 빠짐없이 찍으시기 바랍니다.